

#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사회활동 만족도 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커뮤니티, 모임, 공동체에의 참여활동을 중심으로

이향수<sup>1</sup>, 이성훈<sup>2\*</sup>

<sup>1</sup>건국대학교 인문사회융합대학 교수, <sup>2</sup>고려대학교 경제통계학부 경제정책학전공 교수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vel of Digital Informatization and Satisfaction Level of Elderly People: Focusing on community, meeting, and community involvement activities

Hyangsoo Lee<sup>1</sup>, Seong-Hoon Lee<sup>2\*</sup>

<sup>1</sup>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Konkuk University, Professor

<sup>2</sup>Dept. of Economics, Korea University, Professor

요 약 우리사회는 점점 고령화사회로 진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위 정보소외계층 중 하나인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디지털정보화 역량이 사회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7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수준과 사회 활동 만족도 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장노년층의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 및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 등 디지털접근과 사회 활동 만족도 수준과는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PC이용능력 및 모바일 디지털기기 이용능력 등 디지털 정보역량수준과 사회활동 만족도 수준도 정(+)의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 등 디지털 정보 활용 등의 수준이 높아 질수록 사회 활동 만족도 수준도 정(+)의 관계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장노년층에 대한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정보격차해소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장노년층, 사회 활동 만족도, 디지털 접근격차, 디지털 역량격차, 디지털 활용격차

**Abstract** Our society is evolving into an aging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digital informatization capacity of elderly people, one of the so - called information - neglected people, affects social activities. To this end,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informatization level and social activity satisfaction level of old elderly peopl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digital information gap survey in 2017.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access and satisfaction level of social activities, such as whether elderly people have wired / wireless information devices and internet accessibility. Second, it was found that digital information capacity level such as PC usage ability and mobile digital device utilization ability had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only social activities. Third,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social activities increased as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increased, such as whether they were using wired and mobile Internet. This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needs a policy to resolve various information gaps that can enhance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zation of elderly people.

**Key Words** : Elderly people, social activity satisfaction, digital access gap, digital capacity gap, digital utilization gap

## 1. 서론

우리사회는 점점 고령화사회로 진화하고 있다. 2018년 7월 현재 한국의 출생율은 1.0% 이하로 떨어지면서 저출생국가의 대열에 진입하게 되었다. 반면 장노년층 인구는 사회구성원 중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장노년층이 정부 정책의 주요한 대상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들은 정보소외계층으로 분류된다[1]. 일반적으로 정보소외계층에는 저소득계층, 장애인, 농어민, 이주민 여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2].

본 연구는 소위 정보소외계층 중 하나인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디지털정보화 역량이 사회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즉, 과연 디지털 정보화역량 수준은 장노년층의 사회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본 연구를 출발하였다.

사회활동이란 매우 다양한 차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단편적으로 정의하기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활동이란 다른 사람과 친교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한 참여를 의미한다[3]. 본 연구에서는 특히 커뮤니티, 모임이나 공동체 등에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사회활동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근 들어 장노년 계층이 예전에 비해 정보화수준에 있어 격차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4], 같은 연령대의 장노년층 간에도 디지털정보화 정도에 따라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의 범위 및 강도는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들의 기본 가정이다. 과연 그러한 것인가에 대해 본 연구를 통해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임이나 커뮤니티, 공동체활동에의 참여가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사회활동 수준간에 정(positive)의 관계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장노년층에 대한 정부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수준에 대한 연구[5-7]나 사회생활 등에 대한 연구는 많았으나[8-11],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사회활동 수준에 영향을 주는지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전문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령화가 심해지고

있는 우리사회의 현실에서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시각을 제시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장노년층의 소위 말해서 정보화 소외계층이라고 간주되는 장노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향후 우리사회는 점점 고령화사회가 되어가고 있으며, 고령화사회에서 장노년층이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이 매우 크며, 중요한 정책 수요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디지털정보격차지수에 대한 문헌연구를 하고, 2017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경험적 분석을 통해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수준과 사회활동 수준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끝으로는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수준과 소득수준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사회활동의 의의

사회활동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사람이 사회와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으로서 인식하며, 여러 가지 사회 참여를 통해 발생하는 복잡한 개념으로 인지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사회활동을 하고자 하는가? 사회활동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동호회, 동창회, 동기회, 친목회, 종교활동, 봉사활동, 지역사회 모임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5]. 이러한 사회활동들은 흔히 여가활동과 동일시 하는 연구도 있다[6]. 여가는 경제적 활동 등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스포츠나 취미나 휴가활동등을 말하는데[7] 그 유형으로는 문화예술관람활동, 문화예술참여활동, 스포츠관람활동, 스포츠참여활동, 관광활동, 취미 오락활동, 휴식, 사회 및 기타활동으로 구분된다[7]. 따라서 여가활동을 포함하여 사회활동을 정의하면 사회활동의 개념이 매우 광범위해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정보기술의 수준이 한 사람의 사회활동 특히 커뮤니티, 모임, 공동체 참여에 한정지어서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커뮤니티나 모임이나 공동체등의 경우 온라인 환경하에서의 변화가 많은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 때문이다[8]. 대신 문화예술을 관람하거나 스포츠 관람과 같이 참여활동의 경우 온라인 환경인지 오프라인 환경인지의

여부 보다는 본인의 관심정도나 경제적 수준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사회활동은 커뮤니티, 모임, 공동체 참여에 한정지어서 개념화하고자 한다.

## 2.2 디지털정보화의 수준

디지털정보화의 수준은 매년 정부에서 조사하는 “디지털 정보격차지수”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디지털 정보격차실태조사는 일반국민의 정보화수준을 준거로 하여 일반국민과 정보소외계층(장애인, 저소득계층, 장노년층, 농어민 등)의 디지털 정보격차 수준을 지수로 표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을 100으로 할 때 정보소외계층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을 측정하여 일반국민과의 격차를 산출한 것이다[9].

디지털 정보격차지수는 유무선 융합 정보통신기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일반국민 대비(100이라고 가정) 정보소외계층의 디지털정보에의 접근, 역량, 활용 수준을 종합한 점수를 말한다. 따라서 디지털정보격차지수는 스마트 접근격차(20%), 스마트 역량격차(40%), 스마트 활용격차(40%)의 가중합계로 산출하게 된다[9].

디지털정보접근지수는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0.5)와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0.5) 등을 합산한 것이며, 디지털정보역량지수는 PC 이용능력(0.5)과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0.5)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또한 디지털 정보활용지수는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0.4),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0.4),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0.2)의 합으로 계산된다[9].

## 2.2 디지털정보화수준과 사회활동만족도

2004년 정보격차지수 조사를 시작한 이래 장노년층의 경우 타 집단과 비교하여 정보화 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또한 2016년부터는 정보격차지수가 디지털정보격차지수로 변화하였다. 이는 정보격차지수가 PC를 기반으로 한 정보격차 수준을 조사하였다면, 디지털정보격차지수는 유무선 환경하에서 스마트 기기를 포함한 디지털정보화 수준의 격차를 조사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이다. 아래 Table 1은 디지털정보화격차 실태조사의 결과 실태조사의 결과 정보소외계층 중에서도 특히나 장노년층의 경우에는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은 그룹임을 알 수 있다. 2017년의 경우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은 일반

국민을 100이라고 할 때, 58.3으로 나타나 장애인 70의 경우보다 훨씬 점수가 낮으며, 농어민(61.1점)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보소외계층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디지털정보격차현상을 심각하게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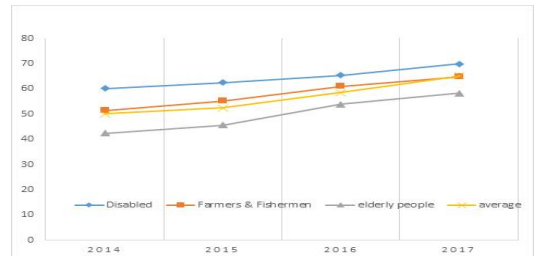


Fig. 1. Digital information level of the underprivileged compared to the whole nation

따라서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 접근 뿐 아니라 역량이나 활용에 있어서도 같이 낮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10-12]. 또한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낮음으로 인해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에서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으로 인해 사회활동에의 참여나 영향력의 수준 역시 낮을 것이며, 이로 인해 사회활동에 대한 만족도 수준 역시 낮을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장노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과 사회활동 만족도 수준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보여 진다.

## 3. 장노년층의 디지털 정보화수준과 사회활동 만족도 수준

### 3.1 조사방법

본 연구는 장노년층의 디지털 정보화수준과 사회활동 만족도수준간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7년의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사회 활동 만족도 수준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9].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반 스마트 환경에서의 디지털정보화수준과의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2017년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의 장노년층 표본추출방법은 2017년 8월 1일 현재 전국의 만 5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성/연령/장애유형/광역자치체별 비례할당표집 방법으로 시행하였다[5].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은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대인면접조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주기는 연 1회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회귀분석을 위해 SAS 10.0을 이용하였다.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수준과 사회활동 만족도 수준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접근지수, 디지털역량지수, 디지털활용지수 및 디지털종합지수 항목, 그리고 사회활동 만족도 수준과 관련된 측정문항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에 명시한 대로사회활동 만족도는 커뮤니티, 모임이나 공동체 참여에의 만족도로 측정하였으며, 사회 활동 만족도 수준1점에서 4점까지의 척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Table 1. Social Activity Satisfaction Survey Tool

division	Not much at all.	I do not have much.	I am somewhat satisfied	I am very satisfied
Social activities (community, gathering, community participation, etc.)	1	2	3	4

### 3.2 장노년층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사회 활동 만족도 수준과의 단순회귀 분석

이하에서는 장노년층의 디지털 정보화수준과 사회 활동만족도 수준과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Table 2에서 종속변수는 사회 활동 만족도 수준을 의미하며, 독립변수는 접근지수를 의미한다. 장노년층의 경우 2017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디지털접근지수와 사회활동 만족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두 변수간의 분포도 관계는 양(+)으로 나타났고 단순회귀 추정 결과 디지털접근지수가 10 증가할 때 마다 사회 활동 만족수준은 0.05단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Sim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digital access index of the elderly people and the social activity satisfaction level

	Coefficient	P-value
Constant	2.1637	<0.01
Digital access index	0.0054	<0.01
R2	0.02	

장노년층의 경우 2017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디지털역량지수와 사회활동 만족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Table 3 참고) 두 변수간의 분포도 관계는 양(+)으로 나타났고 단순회귀 추정 결과 디지털역량지수가 10 증가할 때 마다 사회 활동 만족수준은 0.06단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Sim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digital competence index of the elderly people and the social activity satisfaction level

	Coefficient	P-value
Constant	2.4700	<0.01
Digital competence index	0.0055	<0.01
R2	0.06	

장노년층의 2017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디지털활동지수와 사회활동 만족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Table 4 참고) 두 변수간의 분포도 관계는 양(+)으로 나타났고 단순회귀 추정 결과 디지털활용지수가 10 증가할 때 마다 정책 활동 만족수준은 0.07단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Sim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Digital Utilization Index and Social Activity Satisfaction Level of the elderly people

	Coefficient	P-value
Constant	2.3979	<0.01
Digital utilization index	0.0068	<0.01
R2	0.06	

또한 장노년층의 2017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디지털종합지수와 사회 활동 만족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Table 5 참고) 두 변수간의 분포도 관계는 양(+)으로 나타났고 단순회귀 추정 결과 디지털종합지수가 10 증가할 때 마다 정책 활동 만족수준은 0.08단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Sim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digital composite index of the elderly people

	Coefficient	P-value
Constant	2.2979	<0.01
Digital access index	0.0079	<0.01
R2	0.07	

### 3.3 논의

본 연구는 2017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수준과 사회활동 만족도 수준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정보화수준이 모임이나 커뮤니티, 공동체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회활동의 만족도 수준 간의 관계를 알 수 있었다. 즉,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활동 만족도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무선 융합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에 따라 사회활동에의 만족도 역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디지털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을 나타내 준다.

단순회귀 분석결과를 통해 본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사회활동 만족도 수준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장노년층의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 및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 등 디지털접근과 사회 활동 만족도 수준과는 양(positive)의 관계를 가진다.

둘째, PC이용능력 및 모바일 디지털기기 이용능력 등 디지털 정보역량수준과 사회활동 수준 역시 양(positive)의 관계를 가진다.

셋째,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 등 디지털 정보 활용 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장노년층의 사회 활동 만족도 수준도 양(positive)의 관계로 증가하였다.

## 4. 결론

고령화사회가 진전될수록 정책수요자로서 장노년층이 차지하는 위상은 점점 커질 것이다. 본 연구는 바로 우리사회의 고령화와 더불어 점점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정책대상자로서의 장노년층의 정보격차 수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물론 이전에도 노인들의 IT 역량에 관한 연구들[13-16]이 있었지만, 본 연구는 이전의 연구와는 차별화된 장노년층의 사회활동이 디지털정보화수준과 깊은 영향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수준에 따라 사회 활동 만족도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향후 정보소외계층 중에서도 일반국민에 비해 디지털정보격차가 가장 컸던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정보 격차해소 정책은 정부의 중요한 관심의제가 되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Table 1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장노년층의 경우 디지털활용수준과 사회 활동 만족도 수준간의 회귀계수가 가장 높았다. 이로서 장노년층의 디지털활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를 통해 모임이나 커뮤니티, 공동체 참여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온라인 상에서의 유무선 디지털기술을 활용을 자유롭게 할 때 커뮤니티나 각종 공동체 참여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체 구성원들간의 자유로운 소통이나 온라인 스키십 등을 통해 사회활동에의 만족도 역시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디지털기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며 이를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정부는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에의 접근, 활용, 역량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장노년층을 위한 특히 저소득계층의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보화교육이나 모바일 기기 활용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그 지역의 또는 그 지역주민들의 형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낙후된 농어촌의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이나 디지털 기기 활용역량을 위한 교육과 대도시의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은 그 내용이나 수준에 있어 다르게 개별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장노년층을 위한 교육의 내용과 질이 대도시 지역과는 차별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 이뤄지고 있는 기초자치체의 지역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보화교육의 경우 초급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편이다. 이를 개선하여 수준별로 다양한 수준의 정보화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정보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정보환경의 변화속도는 장노년층이 따라가기에는 때로는 지나치게 빨라서 자칫 디지털정보화가 우리사회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의 대상에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외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현상 혹은 정보지체현상은 사실 사회활동 수준에서의 격차 뿐 아니라, 경제적 수준, 대인

관계나 가족관계등 여타 다양한 부문에서의 활동이나 참여에 있어서도 제2차, 제3차의 영향을 주게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격차해소정책이 매우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장노년층의 디지털 정보화수준과 사회활동 만족도 수준 간에는 정(positive)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정부가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정보격차를 위한 정책수립에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반면, 본 연구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등 질적 연구를 통해 그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디지털정보화수준에 따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을 분석하는 것 역시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고 판단된다.

또한 장노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활동 만족도가 높은 것은 경제수준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적 수준은 디지털정보화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회활동 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향후 경제적인 수준도 포함하여 사회활동 만족도 수준과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후속연구주제를 삼고자 한다.

## REFERENCES

- [1] M. Y. Kim & S. J. Byun. (2018). The Improvement Index of Smart Public Services to Advance Information Accessibility for the Elder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5), 43-53. DOI: 10.14400/JDC. 2018.16.5.043
- [2] S. Choi. (2016). Study on ICT standardization unify North and South Korea- North Korea open Internet induction pla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4), 79-88. DOI : 10.14400/JDC.2016.14.4.79
- [3] K. S. Noh & S. H. Park. (2013). Measures for e-Learning Policy Effectiveness Improvement through Analysis of Maturity of Korean Policy Appli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12), 11-19. DOI : 10.14400/JDPM.2013.11.12.11
- [4] S. Y. Pi & S. J. Do. (2017). The Effectiveness of the Flipped Learning using the Smart Devi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4), 65-71. DOI : 10.14400/JDC.2017.15.4.65
- [5] H. S. Lee & S. H. Lee. (2018). A Study on Digital Divide of Farmers and Fisherm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 13-20. DOI: 10.14400/JDC. 2018.16.1.013
- [6] J. K. Kang & J. Y. Lee. (2015). Status and Tasks of ICT-based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 67-76. DOI : 10.14400/JDC.2015.13.1.67
- [7] B. W. Lim & O. J. Lee. (2012). A Study on the Social Experiences of the Elderly Applying Grounded Theory. *Korea Policy Studies*, 12(4), 477-497.
- [8]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6). *National leisure activity survey statistical information report*.
- [9]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 NIA. (2017). *The Report on the Digital Divide*.
- [10] W. K. Kim & K. T. Hwang. (2017).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and Directions of Bus Information System based on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0), 63-81. DOI : 10.14400/JDC.2017.15.10.63
- [11] J. I. Ahn & Y. K. Seo. (2014). An Analysis of Sub-factors of Digital Media Literacy Divide: Focusing on the effects of generation and economic statu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2), 69-78. DOI : 10.14400/JDC.2014.12.2.69
- [12] I. K. Jeon & J. H. Chung. (2015). Study of GUI design convergence guideline for the users of aged gener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7), 323-331. DOI : 10.14400/JDC.2015.13.7.323.
- [13] Y. S. Cho, J. R. Woo & K. S. Noh. (2017). Application Profile for Multi-Cultural Content Based on KS X 7006 Metadata for Learning Resourc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4), 91-105. DOI : 10.14400/JDC.2017.15.4.91
- [14] S. K. Kim, S. J. Lee & J. G. Kim. (2016).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hased Big Data Distribution Model Based on Big Data Distribution Ecolog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5), 95-106. DOI : 10.14400/JDC.2016.14.5.95
- [15] Y. J. Jo. (2015).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onnectivity and Convenience of Smartphones of Word-of mouth Intentions in the Convergence Era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Appli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5), 69-78. DOI : 10.14400/JDC.2015.13.5.69
- [16] B. J. Lee & S. H. Lee. (2016). A Study on the Influence

of Internal Marketing to Customer Orientation in Convergence Era - The Mediating Effect of S Electronic Employee's Trust to Leade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9), 99-109.

DOI : 10.14400/JDC.2016.14.9.99

- [17] S. Y. Lee & M. J. Cheong. (2014). A Study on 'Platform' e-Government for Reducing the digital divide in a Multicultural Society of S.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 1-12.

DOI : 10.14400/JDPM.2014.12.1.1.

이 향 수(Lee, Hyang Soo) [중신회원]



- 199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 199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석사)
- 200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건국대학교 인문사회융합대학 교수

· 관심분야 : 지식관리, 정보화정책, 전자정부, 성과관리, 정책평가

· E-Mail : yun7ju7@kku.ac.kr

이 성 훈(Lee, Seong Hoon) [중신회원]



- 1990년 2월 :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문학사)
- 1993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사)
- 2002년 9월 :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경제학 박사)

· 2011년 3월 ~ 2016년 2월 :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고려대학교 경제통계학부 경제정책학전공 교수

· 관심분야 : 지식자본, 생산성, 산업조직

· E-Mail : leeseonghoon@korea.ac.kr